

필리핀

면적 : 300.4천km ²	화폐단위 : Peso (P)
인구(2003) : 84.6백만 명	환율(2003) : U\$1 = P54.2(연평균)
GDP(2003) : 804억 달러	회계연도 : 1. 1 ~ 12. 31
1인당GDP(2003) : 4,246 달러	

I. 국내경제

(단위: %)

구분	2000	2001	2002	2003e	2004f
경제성장률	6.0	3.0	4.4	4.3	4.5
재정수지/GDP	-4.0	-4.1	-5.3	-4.9	-4.7
소비자물가상승률	4.3	6.1	3.1	3.1	4.0

자료 : EIU Country Report

□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 유지

-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.3%로,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농업부문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. 2004년에는 OECD 국가들의 전자제품 수요 상승과 세계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 증가로 4.5%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긴축재정과 소비자 물가 상승 예상

- 세수관리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공공채무 부담에 이자지급 등 예산관리 실패로 인한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긴축재정이 지속되고 있음.

- 2003년 소비자 물가는 3.1% 증가하는데 그쳐 정부의 물가상승 목표치(4.5%~5.5%)를 밑돌았는데, 이는 식료품과 담배 등의 가격상승폭이 소비자 물가 상승 폭보다 적어 물가상승을 억제했기 때문으로 분석됨. 2004년 소비자 물가는 국제 원유가 상승의 압력과 폐소화의 약세, 대통령 선거 등의 요인으로 인해 4%의 상승이 예상됨.

II. 국제경제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00	2001	2002	2003e	2004f
경 상 수 지	6,258	1,323	4,197	1,373	1,500
경상수지/GDP	11.3	5.8	5.4	1.8	1.9
상 품 수 지	3,814	-743	408	-2,261	-2,200
수 출	37,295	31,243	34,383	34,605	37,900
수 입	33,481	31,986	33,975	36,866	40,100
외 환 보 유 고	13,052	13,442	13,144	13,646	n/a
총 외 채 잔 액	50,400	52,400	53,900	57,500	61,000
총외채잔액/GDP	66.9	73.3	72.5	72.2	n/a
D. S. R.	12.2	16.2	14.5	14.2	n/a

자료 : EIU Country Report

□ 경상수지 흑자의 확대 전망

-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2002년 동기대비 67.3% 감소하였으나, 해외 필리핀 노동자의 본국 송금 증가로 인한 소득 수지 흑자 확대의 영향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약간 확대될 전망임.

□ 상품수지 적자 지속될 듯

- 수출보다 수입의 더 큰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가 2004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약22억 달러를 유지할 전망임.

□ Peso 가치의 하락세

- 환율은 지난해 군부의 쿠데타기도 등 정치불안요소로 인해 폐소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음.(03.11:1\$=55.85P) 2004년에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불안으로 1\$=55.50P를 예상하고 있어 여전히 취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
□ 외채 부문은 양호

- 외채는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대부분은 중장기 양허성 외채이며, D.S.R.과 단기외채/총외채가 10% 이하로 양호한 수준임.

III. 정치 · 사회

1. 정치 안정성

□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향방

- 2001년 1월 20일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을 대신하여 부통령이었던 아로요가 군부의 지지와 ‘피플 파워’의 무혈혁명을 통해 대통령직을 승계 하였음.
- 2001년 5월 14일에 실시된 총선 결과, 아로요 대통령의 여당연합이 상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등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중

간 신임을 묻는 선거에서 여당이 무난히 승리함으로써 정국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.

- 현재 아로요 대통령은 올해 5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재선을 노리고 있음. 부통령과 상원의원도 함께 뽑는 이번 선거는 각 후보들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회복, 이슬람 공산반군세력과의 화해노력에 쟁점을 두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.

2. 사회현황

- 2001년 8월, 정부는 남부지방의 이슬람 반군단체인 모로족 이슬람 해방전선(MLIF)과 휴전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슬람세력과의 갈등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임.
 - 모로족 국민 해방전선(MNLF)과는 1996년 9월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나, 최근 Abu Sayyaf 활동지원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됨. 2001년 초부터 민다나오섬 자치문제와 관련하여 소요와 분쟁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.
- 작년 3월에 남부 다바오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테러 이후 관련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회교세력이외에도 좌익세력의 활동강화가 우려되고 있음.
- 아로요 대통령과 군부와의 불화설로 인해 작년 7월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장교들과 소장과 장교들이 쿠데타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감.
- 그러나, 이 사건으로 인해 소문으로만 나돌던 대통령과 군부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으며, 정치 불안과 사회불안은 더욱 가중됨.
- 빈곤계층이 30%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,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.

3. 대외관계

□ 미국과의 우호증진

- 9.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정보와의 공조로 이슬람세력 소탕을 위한 미군주둔에 아로요 정부가 한때 협조함으로써, 미국으로부터 군사·경제적인 지원을 약속 받는 등 미국과의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기도 하였음.
- 일본과는 2004년 2월 FTA체결을 위한 협의를 가짐.

IV. 기타

1.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

OECD: 4등급(2003.04)

I.C.R.G: 70/140(2004.1)

Euromoney: 65/185(2003.09)

I.I: 65/172(2003.09)

- S&P, Moody's등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최근 조정되지 않고 있음. 대부분 투자 부적격 등급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.(S&P: BB , Moody's: Ba2)

2. 국제사회 지원동향

- 1998년 3월 IMF로부터 13억 7,100만 달러의 대기성차관 지원승인에 따라 2000년 8월말까지 9억 3,600만 달러를 지원 받았으나, 재정수지 개선 및 경제구조 개혁 등의 IMF지원조건을 충족시키지

못함에 따라 IMF의 추가적인 차관지원이 보류된 상태임.

- 세계은행은 경제 회복, 빈곤 감축, 환경 개선, 인프라 개발, 민영화 추진 및 부폐 척결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지속
 - 2000년 2월: 사회보장제도 개선 및 국도 개량 사업자금 지원
 - 2001년 12월: 낙후되어 있는 동부지역의 도로 개선자금 지원
 - 2002년: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Soft Loan 지원
- ECA지원
 - 미국 수출입은행: 차입자와 차입기간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 - 일본 JBIC: 2001년 4월부터 1년간 IT사업 육성 등에 325억 엔을 한도로 언타이드론 지원 승인
 - 독일 Hermes: 부보한도는 제한 없으며, 프로젝트당 부보한도는 25백만 유로로 운용

3. 외채상황태도

- 對 ECA 연체율은 2001년 말 27%수준이나, 리스케줄링 채무는 거의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4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공식 수교일: '49년 03월 03일 (북한과의 수교일: '2000. 07. 12)
- 주요협정: 경제기술협력협정('85), 이중과세방지협정('87), 투자보장협정('96)

○ 무역현황

(단위:천달러)

구 분	2000	2001	2002	2003.11	주요 품목
수 출	3,359,774	2,535,383	2,950,038	2,710,224	전기 전자장비, 기계류, 화학제품
수 입	1,814,748	1,819,018	1,867,351	1,769,602	전기 전자장비, 기계류, 동

자료 : KOTIS, 한국무역통계.

○ 대 필리핀 직접투자현황(순투자기준): 2003년 12월 기준

20건 15,905천 달러